해남미남축제 구름인파…'가을 미식' 진면목 보여줬다

3일간 두륜산 일원…첫날 7만명 발길
'해남쌀' 라이브 커머스 7천만원 성과
1천석 규모 미남푸드관 재료 조기소진
郡 "소득 창출 실속형 축제 자리매김"


전남광주 해남군 삼산면 두륜산 도립공원에서 최근 열린 '해남미남축제' 쌀 요리 체험에 참여한 관광객들이 삼미 모나카를 만들고 있다. 〈해남군 제공〉

남도의 대표 미식 축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의 '해남미남(味南)축제'가 구름 인파를 동원하며 3일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삼산면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린 '해남미남축제'가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린 가운데 막을 내렸다.

특히 개막 첫날에만 연인원 7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올해 축제는 '해남쌀'을 전면에 내세워 차별화를 꾀했다. 쌀 관련 전시와 체험, 판매를 하나로 이은 주제관은 끊임없는 발길이 이어졌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를 통한 직거래는 고품질 해남쌀을 저렴하게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었다.

축제 첫날 진행된 해남쌀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단숨에 7천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현장 판매와 밀키트 등 특산물 부스에서도 800여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관광객의 오감을 사로잡은 먹거리 코너의 경우 1천석 규모로 쾌적하게 조성된 미남푸드관과 주전부리관에서 첫날에만 7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

특히 올해 메인 테마에 맞춰 축제장 내 모든 조리용 쌀을 최고급 해남산으로 공급한 결과, 찰진 밥맛에 매료된 관광객들이 쇄도하며 일부 음식점에서는 준비된 식재료가 조기에 동났다.

딱딱한 의전 위주 기념식을 생략한 개막 행사에서는 한 톨의 쌀이 맛있는 밥상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애니메이션과 현장 군무로 풀어냈으며 김용빈·홍지윤 등이 무대를 달군 '미남트롯축하쇼'와 10월의 마지막 밤을 수놓은 성리·자두의 낭만콘서트가 가을밤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 중 해남 농산물을 활용한 삼미(三味) 모나카, 쑥 꿀레, 주먹밥 만들기 부스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300여명이 한데 어우러져 해남 배추로 김치를 담그는 대규모 '김치 비빔 행사'와 인근 농장에서 진행된 고구마 캐기 체험 역시 예약이 조기 마감되며 인기를 끌었다.

해남군 관계자는 "역대급 구름 인파가 몰렸음에도 관람객들의 성숙한 질서 의식과 철저한 현장 관리 덕분에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치러냈다"며 "해남미남축제를 전국 최고의 미식 관광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

완도군, 민선 9기 77개 핵심 공약 이행 '속도'

2조8천억 규모 6대 분야 실천 계획 수립
고속道·임대주택 건설 등 정주 여건 개선
혁신성장 방점 국·시비 확보 행정력 집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민선 9기 청사진을 구체화한 77개 핵심 공약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 혁신 성장에 나선다.

2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정 목표인 '참여 자치 실현! 함께 여는 새로운 완도' 구현을 위해 6대 분야 77개 공약 사업의 실천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확정된 공약은 ▲군민 중심, 참여 자치 ▲살고 싶은 정주 도시 ▲매력 충전, 품격 관광 ▲걱정 없는 행복 복지 ▲블루 첨단 혁신 성장 ▲상생 번영 활력 경제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군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미래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열린 행정의 기틀을 다진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완도-강진 고속도로, 약산-금일 연륙교, 소안-구도 연도교 건설을 추진하고 청년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관광·복지 분야로는 체류형 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축제의 섬' 조성과 원동항 명소화 사업에 나선다.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완도형 농어촌 기본 소득' 지급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첨단화 사업도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 기반 선진형 수산물 통계 시스템과 수산식품 가공 공장 AI 스마트화 지원 등을 도입해 전복과 유자 등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2조1천183억원, 전남광주시비 2천890억원, 군비 4천114억원 등 총 2조8천187억원 규모다. 군은 85%에 달하는 국·시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신 완도군수는 "공약 사업 확정은 군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 옮긴 첫걸음"이라며 "국·시비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영광군, 국방부에 '해상풍력 협의체' 구성 제안

장세일 군수, 이두희 차관과 면담
군사구역 중첩 문제 등 해결 건의
국가·에너지 안보 공존 방안 모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은 2일 "최근 장세일 군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만나 해상풍력 사업과 군사구역 간 중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에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진〉

현재 영광 해역에는 국가 재생에너지 공급과 RE100 산단 조성을 이끌 총 발전용량 4GW, 사업비 40조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 구역이 군 작전·훈련 구역과 겹치면서 원활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장 군수는 개별 지자체나 사업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안보와 발전 사업의 실질적인 공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국가 안보와 에너지 안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지켜야 할 핵심 책무"라며 "국방의 중요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해상풍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건의 사항을 관계 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영광군은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군사작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영광=김동규 기자

함평 국향대전 '힐링생태축제'로 인기몰이

산책·쉼 테마 폭포동산 등 조형물 풍성
사랑의손·거울동굴 포토존 발길 이어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은 2일 "지난달 개막한 가을 대표 축제인 '2026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자연과 어우러진 힐링 생태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중앙광장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산책과 쉼'을 테마로 축제 공간을 새롭게 단장한 축제는 나비 연못을 조성하고 소나무 숲길을 따라 국화 조형물을 배치해 관람객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곳곳에 자리 잡은 대형 국화 조형물은 최고의 볼거리로 관람객이 올라가 축제장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신비의 폭포동산'과 나비 연못 한가운데 우뚝 선 메인 조형물 '물의 여신'(사진)은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붉은 하트를 품은 '사랑의 손',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유니콘의 억새동산', '신비의 거울동굴' 등에는 연일 인생 사진을 남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백호와 용 등 다채로운 신화 속 수호자 조형물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문정모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숲길을 거닐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한 휴식 공간을 준비했다"며 "국화 향기 가득한 함평에서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6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오는 8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국화 전시와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펼쳐진다.

/함평=기영규 기자



목포해경, 연안사고 '골든타임' 사수 총력

지자체·소방·경찰 등 협의회·간담회 개최
안전시설 확충 등 현장 예방책 중점 모색

목포해양경찰서가 지자체와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며 연안사고 선제 예방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초기 '골든타임'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목포시와 신안·무안군을 비롯해 일선 소방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참석 기관들은 지역별 연안의 숨은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안전 시설물 대폭 확충 ▲합동 안전 캠페인·교육 전개 ▲기관 간 정보 공유 채널 강화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은 물론, 유사 사고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긴급신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해경은 지난달 30일 종합상황실에서 목포·신안경찰서, 목포·신안소방서, 119종합상황실 등 긴급 대응 전담 유관기관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기관별 상황 관리 체계를 공유하고 실제 긴급신고 접수·공동 대응 사례를 복기해 해양 조난 등 재난 상황에서의 협력 시스템을 점검했다. 또한 현장 출동 세력 간 신속한 상황 전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현상 등 실무적 개선점을 발굴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목포해경은 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도출된 실무 안건들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상시 가동하고 해역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연안사고 예방 대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최원식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양 사고 예방과 긴급 상황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톱니바퀴 공조가 중요하다"며 "현장 위험 요인을 살피고 실전과 같은 대응 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신안군, 이동·숙박 캠핑카 '섬카' 시범운영

12월말까지 체류형 관광 상품 눈길
목포역 인수·반납…KTX 할인 혜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2일 "(재)예술섬과 함께 오는 12월28일까지 캠핑카를 타고 섬 여행과 숙박을 동시에 즐기는 '2026 신안 섬카(섬CAR)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섬카는 '섬'과 자동차 '카(Car)'의 합성어로 캠핑카를 이용해 신안의 아름다운 섬을 자유롭게 누비며 숙박까지 원스톱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체류형 관광 상품이다.

이동과 숙박을 결합한 여행 방식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골목 상권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용객은 KTX 목포역 인근에서 차량을 인수해 다도해를 즐긴 뒤 같은 장소에 반납하면 된다. 차량 내부에는 캠핑용 탁자와 취사도구 등이 완비돼 있다.

평일 이용 시 KTX 요금의 10-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예약·상세 안내는 전용 상담 전화(1668-1141)를 이용하면 된다.

재단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축적된 이용객 만족도와 세부 데이터를 분석해 내년 정식 사업 추진·서비스 고도화에 반영할 방침이다.

(재)예술섬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신안을 하룻밤 더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섬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강진사랑상품권 15일까지 최대 22% 혜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전국 최대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오는 15일까지 강진사랑상품권 추가 캐시백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국비 4천500만원을 투입해 침체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모바일 결제 앱인 '모바일착'으로 결제하면 기존 7% 캐시백에 5%가 얹어져 총 12%를 환급받는다. 상품권 구매 시 주어지는 10% 선할인 혜택까지 더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혜택은 22%에 달한다.

추가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최대 5만원이며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은 추가 혜택 없이 기존 10% 선할인만 적용된다. 군은 착한가격업소 결제 시 5%,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결제 시 10%를 추가 적립해 주는 이벤트도 병행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강진=박길종 기자